



사회적 The Social Dialogue 대화 Brief

2024년 - 9호 | 통권 56호 |

경사노위,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발족



▲ 5월 3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석구 상공회의소 상무, 정문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문주 한국노총 사무처장,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위원장, 이원덕 '미래세대 특위' 위원장,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 주환욱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지난 5월 30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발족식 및 1차 회의가 개최됐다. 특위는 앞선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급격한 노동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1개의 특위와 2개의 의제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정 관계 기관의 부대표자급 각 3명씩과 공익위원 6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하며, 향후 6개월간 운영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세부적으로는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

< 특위 주요 논의 의제 >

구분	위원회명	논의 의제
특별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활력은 떨어지고 격차는 심화되고 있어 이대로 가다간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며, “노사정은 상생과 협력의 정신을 토대로 사회적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여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덕 특위 위원장은 “특위 의제는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 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지만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며, “특위가 위원 한분 한분의 역량과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논의 의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장이 되고,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 경제와 근로자를 위해 희망을 심는 역할을 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노사정 대표들도 바람과 각오를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노사정 사회적대화는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으로, 무리한 합의 도출을 위한 조급한 논의보다는 상호 입장차이를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는 데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지속가능한 노동시장과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 이원덕 미래세대 특위 위원장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동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특위를 통해서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실질적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뜻깊은 날”이라며, “앞으로 노사정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새로운 고용노동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특위는 의제별로 노·사 의견을 청취하여 우선 논의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ESC](#)

< 특위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직책
위원장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노동계 위원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경영계 위원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정부 위원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공익 위원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김중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호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담당 손영우 전문위원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한도 본격 심의”

경사노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잇따라 발족



▲ 14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근면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한도 결정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심의가 본격화 된다.

공무원·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근무시간면제제도
 는 윤석열정부 출범시 공무원·교원 노조전임자에 대한 타임
 오프제도 마련을 통해 원활한 노조활동 보장을 공약으로 제
 시하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2.6월 「공무원의 노동조
 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
 대표 또는 임용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무시간 면제 한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수의 손실없이 노동조합
 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민간 부
 문의 일반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교원 노조 업무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도록 하고 그 기간 중 보수
 또는 봉급지급을 금지하는 등 노동조합 업무에 대한 근무시
 간 면제제도를 도입·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민간부문과 비
 교하여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14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교원 근무시간 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식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근로시간면제 심의위원회」 발족은 그간 제기되어온
 민간부문과의 형평성문제를 해소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노
 사관계를 법과 원칙에 기반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의 획기
 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구성되는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 심의위
 원회(이후 공무원근면위, 교원근면위)는 경사노위의 특별
 위원회로, 공무원(교원) 대표, 정부(임용권자) 대표, 공익위



▲12일 경사노위에서 열린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김문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현진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왼쪽), 박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

원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24.2.28 제시된 공익위원 추천명단 관련 노동계와 정부 간 이견으로 발족이 지연되었으나, '24.6.3 노동계에서 공익위원 후보 순차배제 명단을 제출하면서 공익위원이 최종 확정되어 비로소 발족하게 되었다.

6월 12일 공무원근면위, 6월 14일 교원근면위 발족식 및 1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하여 각 위원장에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공무원근면위), 윤종혁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 연구소 교수(교원근면위)를 선출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발족식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경우 민간

부문에 비해 국민 정서를 비롯하여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노조의 활동이 보장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노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면제한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향후, 근면위는 발족 후 공무원·교원 근무시간면제한도 결정 시 노사관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여 심의할 예정이다.

경사노위는 향후 공무원,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밀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eslc**

< 공무원근면위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공무원 위원	고영관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정책본부장
	김태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본부장
	신동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이상엽	공무원노동조합연맹 홍보교육본부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정부 위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김봉철	부산광역시 행정자치국장
	조영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윤병일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공익 위원	김동배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용	강릉원주대학교 교양기초교육본부 교수
	조경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선애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교원근면위 위원 명단 >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교원대표 위원	이장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송수연	교사노동조합연맹 수석부위원장
	정수경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위원장
	방효원	한국교수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임용권자 대표위원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설세훈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한근수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
	전찬구	학교법인 서원학원 이사장
	정시영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행정본부장
공익 위원	권기욱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광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기선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강직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종혁	숙명여대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담당 류형민·김경희 사무관